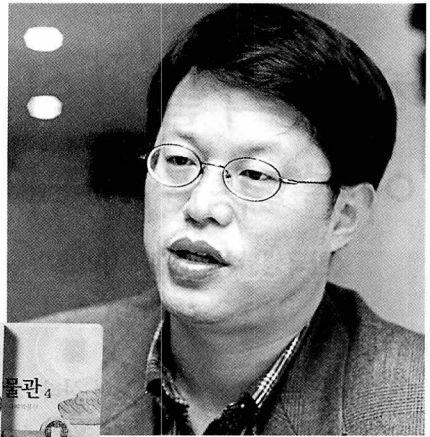


마니아적 열정으로 박물관 대중화 앞장선다

〈한국의 박물관〉 시리즈 펴내는 한국박물관연구회



정인수씨

문예마당/B5변형/300면 내외/15,000원 내외

게다가 이런 책을 내출 만한 출판사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

한국박물관연구회가 펴낸 〈한국의 박물관〉 시리즈(문예마당)는 현재 4권까지 나와 있다. 이 책에서는 모두 10개의 박물관을 살펴보고 있다. 1권은 갈촌탈박물관·하회동탈박물관·공주민속극박물관을 엮고, 2권에서는 양구선사박물관·경보화석박물관을 묶어 살핀다. 3권에서는 목아박물관과 통도사를 찾아보고, 4권에서는 한국은행 화폐전시실·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서울중앙우체국 우정박물관을 꼼꼼히 돌아본다.

이 시리즈는 다른 책과는 달리 단순히 박물관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을 살펴보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이나 박물관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자세하게 소개한다. 가령 갈촌탈박물관과 하회동탈박물관편에서는 탈의 기원과 역사, 탈춤의 종류 등을 아우르며 각 탈이 탈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탈춤의 사실까지 곁들여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소개한다.

박물관 사랑하는 사보기자 출신들이 회원

이 책들을 꾸준히 펴내고 있는 한국박물관연구회는 1998년에 결성됐다. 회원들은 박물관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나 교수가 아니다. 박물관을 사랑하는 30~40대 직장인 4명이 모여 만든 것이 한국박물관연구회다. 이들은 모두 전직 기업 사보 기자 출신이다. 자신들의 글쓰기가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런 필요성이 이들을 박물관으로 모이게 했다. 회원들은 틈만 나면 박물관 답사를 다녔고 답사를 다니기 위해 모은 자료들이 쌓이다보니 책으로 엮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중에 박물관 책은 너무 많이 나와 있었지만 이들 책들은 거의 수박 겉핥기식으로 박물관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유물에 대한 자세한 소개보다는 어떤 유물이 있다는 정도의 내용뿐이었다. 그래서 박물관에 관한 자료뿐 아니라 배경 지식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을 함께 소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책을 엮자고 결심은 했지만 그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정인수 대표(42)는 말한다.

“자료를 찾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관련 책과 문헌은 물론 백과사전, 인터넷까지 모든 자료수집처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 사진도 반 정도는 직접 찍고, 나머지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슬라이드나 도록을 활용했다.”



책 한권을 내는 데 2천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문예마당이 자사의 대표책으로 삼고 적극 지원해주지 않았다면 이 책이 빛을 보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정대표는 털어놓는다.

3~4년 걸려 10권까지 펴낼 계획

그렇게 노력한 끝에 6개월 만에 1권이 나왔고 그 뒤부터는 1년에 한권씩 책을 펴내고 있다. 너무 전문화된 미술관 등

을 제외하고 가족이 함께 갈 수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박물관들을 우선 선정했다. 내용도 되도록 쉽게 서술했고 각 박물관별로 박물관장이나 학예사들의 감수도 거쳤다. 올해 안에 궁중유물과 강릉선교장을 한권으로 묶어 펴내고, 각 민속박물관과 등잔·기와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도 각각 두권의 책으로 엮을 예정이다.

박물관을 다니다 보니 우리나라 박물관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눈에 띄었다. 정대표는 “박물관이 많아졌고 문화장소로서 큰 역할을 함에도 정부의 지원은 많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시설 박물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떼고 전시관으로 바꿔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도 많다. 정부 지원은 많지 않은데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면 입장료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문예진흥기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니 박물관 수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것도 당연한 일이다. 정대표는 “영국에는 모두 2천여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는 미술관까지 포함하더라도 5백여개에 불과하다. 미술관을 제외하면 2백여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래도 지방자치체가 활성화되면서 구립, 군립 박물관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이런 박물관들이 그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정대표는 강조한다.

한국박물관연구회는 앞으로 〈한국의 박물관〉 시리즈를 10권까지 펴낼 예정이다. 10권까지 펴내려면 3~4년을 더 걸릴 것이라고 정대표는 예상한다. 그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김정근기자